

박경리의 『토지』에 나타난 일본 천황에 대한 비판인식*

김 용 의**

(e-mail : yukim@jnu.ac.kr)

< 목 차 >

- | | |
|------------------------|--------------------------|
| 1. 시작하며 | 4. 천황숭배 및 천황의 신격화에 대한 반발 |
| 2. 일본문화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천황 | 5. 마치며 |
| 3. '천황'이라는 호칭의 부당성 | |

키워드 : 朴景利(Park Kyeongri), 日本認識(Recognition on Japan), 天皇(Japanese emperor), 日本文化(Japanese culture), 天皇崇拜(Worship of the Japanese emperor)

1. 시작하며

‘천황’인가 ‘일왕’인가. 일본의 국왕을 가리켜서 ‘천황’으로 호칭할 것인지, 아니면 ‘일왕’으로 호칭할 것인지 판단이 어려울 경우가 있다.¹⁾ 이는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본과의 공식적인 외교관계는 물론이고, 때로는 개인 차원의 학술활동에서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어떻게 부르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 호칭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일본의 천황이라는 존재는 한국사회에서 무척이나 불편하고 결끄러운 존재임이 분명한 듯하다.

한국사회에서 일본의 천황은 한국인의 일본관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척도가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8-361-A00006).

**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일본문화학 전공.

심사과정에서 논문을 꼼꼼하게 읽고 지적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1)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본의 국왕을 지칭할 경우에는 천황이라고 표기하고 천황과 일왕을 구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 ‘천황’과 ‘일왕’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되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일본의 천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지, 시대적으로 천황에 관한 담론이 어떤 과정을 거쳐 생성되고 유통되었는지, 그 담론들이 현재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²⁾ 뿐만 아니라, 어느 특정한 개인이 ‘천황’과 ‘일왕’ 둘 중에서 어떤 호칭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지를 눈여겨본다면, 그 사람의 한일관계사에 대한 역사인식, 흔히 말하는 일본관, 혹은 일본에 대한 호감의 정도까지도 대충 가늠해볼 수 있을 정도이다.

필자가 박경리의 『토지』를 통해서 일본 천황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토지』는 일부 평자 사이에서 ‘일본론으로 쓰여진 소설(日本論として書かれた小説)’³⁾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일본, 일본인, 일본문화에 대한 방대한 지식이 담겨 있다.⁴⁾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가히 ‘일본문화백과사전’이라 부를만한 수준이다. 따라서 『토지』 연구에 있어서 작가의 일본, 일본인, 일본문화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물론 이 점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⁵⁾ 선행연구에서는 작가 박경리의 일본에 대한 지나친 비판의식이 작품의 서사적 완결성과 미학적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⁶⁾

둘째 박경리의 『토지』가 한국근대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했기

2) 다음과 같은 연구를 들 수 있겠다. 구난희(2010) 「일제하 천황인식 형성과 역사교과서의 천황서술 : 1930년대 이후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 12, 한국역사교육학회, pp.75-114. 박상현(2014) 「이광수 「명치천황어제근역」의 번역대본 연구」 『일본문화학보』 61, 한국일본문화학회, pp.83-97.

3) 鄭顯琦(2001) 「日本論として書かれた小説」 『週刊朝日百科 世界の文學』 112, 9月, 朝日新聞社.

4) 예를 들어 김용의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역사적 실존인물이 120 여명 등장한다. 김용의(2011) 「박경리의 『토지』에 등장하는 일본의 역사적 인물」 『한국일어일문학회 2011년도 하계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일어일문학회, pp.232-235.

5) 본고에서 참고한 주요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위의 논문 3) 鄭顯琦(2001). 박상민(2004)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일본론」 『현대문학의 연구』 24권, 한국문학연구학회. 박상민(2008) 「작품 구조와 인물을 통해 본 일본론」 『한국근대문화와 박경리의 『토지』』, 소명출판. 申銀珠(2006) 「朴景利『土地』に描かれた日本・日本人論」 『新潟國際情報大學 情報文化學部 紀要』 第9号, 新潟國際情報大學. 최유찬(2006) 「『토지』와 일본」 『해방 60년 한국어문과 일본』, 보고사. 이상진(2010) 「탈 식민주의적 시각에서 본 <토지> 속의 일본, 일본인, 일본론」 『현대소설연구』 43, 한국현대소설학회. 김용의(2011) 「박경리의 『토지』와 일본인식 - 『토지』에 등장하는 일본 문학자-」 『일본어문학』 제51집, 한국일본어문학회.

6) 위의 논문 5) 이상진(2010) p.414. 김용의는 『토지』에 등장하는 일본의 문학자를 정리한 연구를 통하여 이 점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견을 밝힌 바가 있다. 위의 논문 5) 김용의(2011) p.307.

때문이다. 『토지』는 1969년 처음 연재를 시작한 이래로 판본을 거듭하며 출판되었다. 그리고 소설로서만이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다.⁷⁾ 따라서 『토지』에 반영된 작가 박경리의 일본인식은 한국사회에서의 일본인식 형성에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문학으로서의 『토지』가 차지하는 대중적 영향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본고는 박경리의 『토지』를 중심으로 일본의 천황에 대한 그의 비판적인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박경리의 『토지』에서는 일본의 천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가 천황을 일본문화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2. 일본문화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천황

박경리는 생전에 에세이 및 강연을 통하여 자주 일본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특히 그가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지닌 이른바 ‘반일작가’임을 부인하지 않았다.⁸⁾ 따라서 그의 글 곳곳에는 일본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여과 없이 직설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의 에세이 글에서 일본, 일본인, 일본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을 삭제한다면 글의 문맥이 흐트러지고 그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좋을 정도이다. 이 점은 그의 대표작 『토지』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일부 평자들 사이에서 『토지』가 ‘일본론으로 쓰여진 소설’이라는 평을 듣는 이유이기도 하다.

7) 『토지』는 1969년 9월 『현대문학』(1부)에 처음 연재되었다. 이후 『문학사상』(2부), 『주부생활』(3부), 『마당』·『정경문화』·『월간경향』(4부), 『문화일보』(5부) 등을 통해서 연재를 이어갔다. 지금까지 10여종의 판본이 전해지며, 영화, 드라마, 서사음악극으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제6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하였다. 『토지』의 연재과정 및 판본에 관해서는 최유찬(2004), 영화, 드라마, 서사음악극 제작에 관해서는 이승하(2004), 교과서 수록에 관해서는 이승윤(2004)을 참조. 최유찬(2004) 『『토지』의 성립과 판본의 변이 양상』 『토지의 문화지형학』, 소명출판, pp.15-88. 이승하(2004) 『소설에서 서사음악극까지』 『토지의 문화지형학』, 소명출판, pp.211-244. 이승윤(2004) 『문학 교육적 활용 방안』 『토지의 문화지형학』, 소명출판, pp.301-356.

8) 예를 들면 생전에 박경리는 일본의 문예평론가 가와무라 미나토(河村湊)씨와 『文藝』 잡지의 편집자가 강원도 원주로 자신을 찾아왔을 때에 자신은 철두철미 반일작가라고 소개하였더니 두 사람이 놀라서 자신을 바라보았다고 회상하였다. 박경리(2004) 『생명의 아픔』, 이룸, p.31.

(2a) “일본이, 일본이 말예요, 항복을, 천황이 방송을 했다 합니다.” 서희는 해당화 가지를 휘어잡았다. 그리고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정말이냐….” 속삭이듯 물었다.…(중략)… “만세! 우리나라 만세! 아아 독립 만세! 사람들아! 만세다!” 외치고 외치며, 춤을 추고 두 팔을 번쩍번쩍 쳐들며, 눈물을 흘리다가는 소리 내어 웃고, 푸른 하늘에는 실구름이 흐르고 있었다.(5부 5권, pp.394-395)⁹⁾

이 장면은 『토지』의 대단원에 해당하는 대목이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의 천황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쟁에 패했음을 시인하는 이른바 옥음방송(玉音放送)을 전하는 장면이다.¹⁰⁾ 최서희는 양현이 전하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서 해당화 가지를 휘어잡은 채로 땅바닥에 주저앉는다.

전권 21권에 이르는 민족 대서사시의 위대한 마침표를 찍는 부분인 만큼, 작가 박경리도 어떤 방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릴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을 것이다. 그 결과 천황의 옥음방송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만세를 부르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과 관련하여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천황’이라는 존재이다. 다시 말하자면 천황이 작품의 마지막까지 얼굴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박경리의 『토지』에서 일본의 천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그 천황을 일본문화의 핵심으로 파악한 박경리의 일본관을 검토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1>은 박경리의 에세이 중에서 특히 일본 관련 글들을 모아서 정리한 목록이다.¹¹⁾ 일본에 관한 에세이를 모은 「일본산고(日本散考)」(2008)¹²⁾를 비롯하여 『만리장성의 나라』(1990), 『문학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1995), 『생명의 아픔』(2004) 곳곳에서 그의 일본인식을 유감없이 피력

9) 이하 본문 인용은 나남출판(21권 전집)에서 발간한 텍스트에 의한다.

10) 옥음방송(玉音放送)에 관해서는 다음 논저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제2장이 매우 참고가 된다. 小森陽一(2003) 『天皇の玉音放送』, 五月書房, pp.15-76.

11) 앞의 논문 5) 이상진(2010) pp.428-429에 정리된 표를 참고로 하여 필자가 자료를 추가하여 보완하였다. 예를 들면 이상진은 『만리장성의 나라』(1990)에 실린 글 중에서 「실제자 없는 기념탑」, 「생존 위한 민족주의」 만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표 1>에 열거한 것처럼, 박경리는 실제로는 일본에 관해서 훨씬 많이 언급하였다.

12) 「일본산고(日本散考)」는 박경리 선생의 유고산문이다. 『원주 투데이』(2008년 08월 11일-09월 16일)에 총 6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나중에 『일본산고-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에게 미래는 없다』(마로니에북스, 2013)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다음 인터넷사이트에서도 원문을 열람할 수 있다. <http://www.wonjutoday.co.kr/>(검색일 : 2015년 11월 20일)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박경리의 문필활동에서 ‘일본’이라는 존재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는 박경리가 중국을 방문한 체험을 글로 엮은 중국체험기 『만리장성의 나라』에서도 일본, 일본인, 일본 문화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였다.¹³⁾ 이 점을 보더라도 그가 얼마만큼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문학자인가를 알 수 있다.

<표 1> 박경리의 일본 관련 에세이 목록

서명	제목	비고
『Q씨에게』 박경리문학전집16(1981)	신기루 같은 것일까	『Q씨에게』 (솔출판사, 1993)
『만리장성의 나라』 (1990)	중국에 대한 나의 인식, 처음 타보는 비행기, 북경의 하늘 밑, 염치 일깨워준 중국인, 설계자 없는 기념탑, 초라한 부의의 궁궐, 타국살이 반세기, 기아에서의 해방은 멀다, 생존 위한 민족주의, 고구려 산성에서, 연변대학,	『만리장성의 나라』 (나남출판, 2003)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 - 박경리의 원주통신』 (1994)	작가는 왜 쓰는가, 삶의 진실,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 삶의 진실, 나의 문학적 자전, 등지 잃은 새들,	
『문학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1995)	문학은 이데올로기를 초월한다 -세분과 통합, 문학은 휴머니즘이다- 미의 관점, 문학은 체계적인 학문이 아니다-독서에 대하여	『문학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에게』 (현대문학, 1995)
『나의 문학이야기』 (2001)	생명을 존중하는 문학	『문학자 17인의 문학회』
『생명의 아픔』 (2004)	무한유전의 생명, 모순의 수용, 신들이 사는 나라, 멧에 대하여, 냉소와 장식, 윤리와 정서, 본성에 대한 공포, 생명과 영혼의 울동으로서의 멧, 진실의 상자 못 여는 일본, 일본인은 한국인에게 충고할 자격이 없다, 철거하되 보존을, 다시 Q씨에게-망상의 끝	『신 동 아』 (1990.9월)
『원주 투데이』	일본산고(日本散考) 1.증오의 근원 2.신국의 허상	『원주 투데이』

13) 박경리가 중국을 여행하며 ‘중국’이라고 하는 시공간에서 일제강점기의 ‘일본’을 발견하고 그 ‘일본’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는 점은 동아시아적 시야에서 일본을 상대화하여 논하고자 할 때에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흥미롭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논하고자 한다.

(2008)	I 3.신국의 허상II 4.동경 까마귀 5. 출구가 없는 것 6.일본인들의 오해, 우리의 착각	(2008년 08월 11일-09월 16일) 연재, 『일본산 고-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에게 미래는 없다』 (마로니에북스, 2013)
--------	--	---

박경리가 파악한 일본문화의 특성은 에로티시즘, 그로테스크, 그리고 난센스라는 열쇠말로 집약할 수 있겠다. 박경리는 이들 세 요소를 일본문화의 본질로 파악하고 이들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각각 성, 칼, 무사로 치환된다고 보았다.¹⁴⁾ 그리고 그 지렛대 노릇을 한 것이 다름 아닌 ‘신국(神國)’과 ‘현인신(現人神)’이라고 지적하였다.

(2b) 1920년대에 ‘에로, 그로, 난센스’라는 말이 일본에서 유행했다. 에로티시즘, 그로테스크, 난센스, 다시 말하면 성과 칼이 무사상인데, 그것은 압축해 놓은 일본의 정체다. 그것들의 지렛대 노릇을 한 것이, 神國, 現人神이며 물론 양해된 기만이었고 瀆神이었다. 현실주의 합리성을 위한 각본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오늘은 ‘에로, 그로, 난센스, 머니’다...(중략)...오늘의 상황은 일본에 한한 것은 아니지만, 무력으로 세계 제패를 꿈꾸었던 일본이 오늘 산업 왕국으로 세계 제패를 실현하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구가 병 들고 황무지가 된다면 황금과 지폐가 산더미 같은 들 무슨 소용인가. ‘에로, 그로, 난센스, 머니’를 청산하고 삶의 터전을 넓혀야 그들도 살아남는다.¹⁵⁾

당연히 『토지』의 곳곳에는 천황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대목이 나온다. 박경리의 천황에 대한 비판은 때로는 작품의 등장인물의 입을 빌리기도 하고 때로는 서술자가 직접 전면에 등장하여 강한 어조로 비판적인 견해를 늘어놓기도 한다. 그 비판적 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다. 첫째 ‘천황’이라는 호칭의 역사적 부당성에 대한 비판이다. 둘째 ‘만세일계’의 ‘현인신’이라는 신화적 허구성에서 비롯된 천황숭배 및 신격화에 대한 비판이

14) 앞의 논문 5) 김용의(2011) p.308.

15) 박경리(1990) 『엄치 일깨워 준 중국인』 『만리장성의 나라』, 동광출판사, pp.88-89.

다. 박경리는 천황이라는 존재를 일본문화의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존재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그의 일본문화에 대한 비판은 천황에 대한 비판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천황에 대한 비판은 박경리의 일본비판의 결정이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3. ‘천황’이라는 호칭의 부당성

박경리가 『토지』 곳곳에서 일본의 국왕에 대한 ‘천황’ 호칭의 역사적 부당성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런데 이 점은 한국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흔히 느끼는 보편적인 정서인 듯하다. 일본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전문적인 식견을 지닌 지식인일수록 대체로 일본의 ‘천황’ 호칭에 거부감을 느낀다. ‘천황’이라는 호칭에서 전달되는 신화적·비과학적·반역사적 성격 때문일 것이다.¹⁶⁾

이 문제는 최근까지도 한국사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논쟁거리가 되었다. 현재는 마스크를 중심으로 ‘천황’이 아닌 ‘일왕’, 그리고 ‘황태자’가 아닌 ‘왕세자’로 호칭하는 관례가 어느 정도 정착된 듯하다. 그렇지만 일찍이 일본 천황에 대한 호칭은 한일관계에서 외교문제로 비화하기 일쑤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대정권의 대일인식의 온도차에 따라서 그 호칭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¹⁷⁾

물론 이 같은 현상이 전적으로 박경리가 『토지』에서 지적한 문제제기에서 비롯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지만 한국사회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대중

16) 예를 들면 소설가 김원우는 ‘천황’이라는 호칭이 유머러스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신화적·비과학적·반역사적 호칭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김원우(2014) 『일본탐독』, 글항아리, pp.50-51.

17) 예를 들면 1998년 5월 13일 당시 박정수 외교통상부 장관이 일본 천황을 ‘천황’으로 부르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한국사회에서 찬반양론이 엇갈렸다. 당시 한나라당의 김철 대변인은 14일 이 발언과 관련하여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박지원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공식방문을 발표하면서 아키히토 일왕을 천황이라고 부르며 앞으로 정부는 천황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쓸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상대국 호칭 그대로 불러주는 게 국제외교 관례라고 설명했다. 2005년 2월 2일에는 당시 반기문 외교부장관이 일본 왕(王)은 천황(天皇)으로 부르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 내용에 관한 기사 검색은 조선일보 아카이브를 참고. http://srchdb1.chosun.com/pdf/i_archive/ (검색일 : 2015년 11월 20일)

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에, 한국사회에서 일본의 ‘천황’ 호칭이 부당하다는 여론 형성에 일정한 정도 이상의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토지』에 언급된 일본의 천황 관련 서술을 확인하기로 한다. 다음의 <표 2>는 박경리가 『토지』에서 일본의 천황에 대해서 언급한 주요 대목을 확인하여 표로 정리한 결과이다.¹⁸⁾ 3부 2권에 서술된 박열 열사의 일본 천황 히로히토(裕仁) 암살미수 사건, 4부 4권에 서술된 윤봉길 의사의 폭탄투척 사건 등을 비롯하여, 작품의 5부로 향할수록 천황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박경리의 『토지』에 서술된 일본 천황 관련 대목

번호	출전	관련 문장	비고
1	3부 2권 p.322	비밀결사 흑도회(黑濤會)에 가입, 일녀 애인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와 함께 일본 천황 히로히토(裕仁)를 암살하려다 거사 전에 발각되어 체포된 것이 작년 시월이었다.	박 열 에 관한 서 술 부분
2	4부 3권 pp.21- 27	“(전략)한데 일본은 천황이오. 비교할 수도 없게 넓은 국토와 국민을 가진 중국도 겨우 천자, 그것도 잘못하면 하늘의 뜻을 어겼다 하여 쫓겨나는 판국인데, 하늘을 다스린다는 옥황상제도 천과 황이 함께 있지 않으니 일본의 천황보다는 자리가 낮다 아니할 수 없소이다. 이걸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개미가 우산 쓰고 가는 격이지 도시 황당무계하단 말씀이야.”	오 가 다, 제 문 식, 조 찬 하, 조 용 하의 대 화
3	4부 4권 p.122	상해 홍구공원에서 일본 천황 히로히토의 생일인 천장절 식전에 우리의 열사 윤봉길(尹奉吉)의 투탄으로 상해 파견군사령관 시라가와 대장이 죽고, 가와바다 거류민단 회장이 즉사 했으며, 제삼함대 사령관 노무라는 한쪽 눈을 잃었고, 시게미즈 공사는 한쪽 다리가 날아갔다.	윤 봉 길 열 사 의 의 거 언 급
4	5부 1권 p.15	휘고 일그러지고 비틀거리는 도시, 일본인은 말하기를 왕도낙토(王道樂土)라, 왕도낙토의 수도는 낙토중에서도 낙원(樂園)일진대 그러면 그것은 부의의 왕도인가 히로히토(裕仁)의 왕도인가.	만 주 국 에 관 한 서 술 부 분
5	5부 2권	오가다의 목소리는 비통했다. “맞소. 신국(神國) 아닌	오 가 다와

18) 필자가 나남출판(21권 전집)에서 발간한 텍스트를 사용하여 정리하였다.

	pp.216-217	지구의 어느 지역에 태어난 사람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야하지요. 현인신이 아닌 사람으로서 추앙을 받아야 할 겁니다. 네 그것이 타파되어야... 허황된 논리는 깨어져야 합니다.(중략)” 찬하는 비판적으로 말했다.	조찬하의 대화
6	5부 2권 pp.437-438	그들 일본인들은 일본을 신국(神國)이라 하고 왕을 현인신이라 하며 후지산(富士山)을 지구의 정신이라 했는데 그러면 신은 악(惡)인가, 신은 모든 것을 탐내는 욕망의 덩어린가. 신은 목숨들을 참혹하게 베어 죽이는 잔혹성 그 자체인가?	양 현 의 생각
7	5부 3권 pp.112-117	(전략)일본인은 거의 모두가 신국사상(神國思想) 현인신(現人神)에 대한 광신자들인 것이다. 일본에는 투철하게 진실을 탐구하는 지성이 없다. 만세일계(萬世一系), 현인신이라는 황당한 그 피막을 찢고 나오지 않는 이상 그 땅에는 진실이 존재할 수 없고 지식인은 말라버린 샘터와도 같은 심장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희극도 바로 그런 것이다. 이시다는 교육자도 선생도 아니고 천황폐하의 첨병인 것이다.	이 시 다 선생의 천 황 에 대한 태 도, 가나자와 쇼사부로에 대한 비판
8	5부 3권 pp.128-129	봉안전이란 일본 천황의 소위 어진영(御眞影)을 모셔놓은 곳이다. ES 여학교에는 천황의 칙어(勅語)가 교장실 어딘가에 간수되어 있겠지만 봉안전은 없었다.	봉안전에 똥을 싼 사건
9	5부 4권 pp.89-90	“군주가 현인신인 이상 진리 진실의 추구는 불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역사적으로 항상 남의 것을 모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원인이 거기 있지요. (후략)”	오가다와 요시에의 대화
10	5부 4권 p.94	“만주로 천도를 한다면... 다른 황족을 옹립할 가능성도 있고, 그야말로 단노우라(壇の浦)의 비극이 재연될 판이군요.”	단노우라 언급
11	5부 5권 pp.224-227	“한데 일본은 천황이오. 비교할 수도 없게 넓은 국토와 국민을 가진 중국도 겨우 천자, 그것도 잘못하면 하늘의 뜻을 어겼다 하여 쫓겨나는 판국인데, 하늘을 다스린다는 옥황상제도 천과 황이 함께 있지 않으니 일본의 천황보다는 자리가 낮다 아니할 수 없소이다. 이걸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개미가 우산 쓰고 가는 격이지 도시 황당무계하단 말씀이야.”	1 5 권 pp.21-27 부 분 의 회상
12	5부	이들이 고문을 들어서서 연병장같이 넓고 살풍경한,	중 학 교

	5권 p.267	나무라고는 한 그루 없는, 그리고 동편에 그 문제의 봉안전(奉安殿)이 있는 교정을 질러 건물 뒤편까지 갔을 때 그곳에는 애국부인회의 띠를 두른 부녀들이 몇 사람, (후략)	교정 풍경
13	5부 5권 p.326	“흥! 총 들고 전선에 나가서 늙은 백다구라도 바쳐야 할 우국충정, 대일본제국 천황폐하의 적자인 그놈들이 시골에는 왜 가야? 시골에 가서 뭐? 시골사람들을 계몽한다구? (후략)”	명 희 와 선 혜 의 대화
14	5부 5권 pp.330-331	그러나 충성스런 천황폐하의 신민이 된 그자들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민족 반역자로 처단될 때 분명 삶의 값어치가 죽음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	명 희 와 선 혜 의 대화
15	5부 5권 pp.394-395	“일본이, 일본이 말이에요, 항복을, 천황이 방송을 했다 합니다.” 서희는 해당화 가지를 휘어잡았다. 그리고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정말이냐….” 속삭이듯 물었다.	대 단 원 부분

박경리의 일본 천황에 대한 비판은 무엇보다도 그 ‘천황’이라는 호칭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이 점을 작품 속에서 직접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3a) “세계 속에는 나라도 많고 따라서 통치자도 기라성같이 많은데, 나를 말할 것 같으면 가본 곳이라곤 일본밖에 없는 우물 안 개구리라, 도처에 흩어진 그 우두머리들의 칭호를 다 안다 할 수는 없겠으나 하여간 손쉬운 대로 열거해본다면, 황제가 있고 왕에서 대왕, 천자, 종교계든 벗이든 다스리는 처지니까 법왕이 있고, 추장이다 족장이다, 요즘같이 민주주의가 유행하는 시국에는 대통령, 총령, 주석,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서기장이든가? 그리고 세계의 거반을 정복했던 알렉산더는 대왕, 테무진은 칸, 나폴레옹은 황제였었소, 한테 일본은 천황이오. 비교할 수도 없게 넓은 국토와 국민을 가진 중국도 겨우 천자, 그것도 잘못하면 하늘의 뜻을 어겼다 하여 쫓겨나는 판국인데, 하늘을 다스린다는 옥황상제도 천과 황이 함께 있지 않으니 일본의 천황보다는 자리가 낮다 아니할 수 없소이다. 이걸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개미가 우산 쓰고 가는 격이지 도시 황당무계하단 말씀이야.” (4부 3권, p.22)19)

19) 이 대목은 나중에 5부 5권의 pp.224-227에서도 작중인물의 회상 형식으로 반복된다.

앞의 인용문은 등장인물 제문식이 일본인 오가다 지로(緒方次郎)에게 천황의 존재에 대해서 험난조로 질문하는 장면이다.²⁰⁾

박경리는 제문식의 입을 빌려서, 천황이라는 호칭이 동서고금의 역사적 사례와 비교해 볼 때에 도무지 ‘개미가 우산 쓰고 가는 격’으로 어울리지 않음을 지적한다. 박경리는 천황이라는 호칭이 심지어는 옥황상제보다도 격이 높은 호칭이라고 언급하며, 그 호칭의 부당성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

4. 천황숭배 및 천황의 신격화에 대한 반발

다시 말하지만 박경리는 일본의 역사 및 문화에 관해서 전문적이고 해박한 식견을 가진 문학자였다. 이 점은 그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어로 학교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지식인이라는 점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겠지만,²¹⁾ 그는 해방 이후에도 끊임없이 일본을 주시하며 일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넓혀간 듯하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앞서 본고 제2장에서 제시한 일본 관련 에세이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박경리는 그 전문적이고 해박한 일본에 관한 지식을 『토지』 속에서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본고에서 다루는 천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 대목을 참고하기로 한다.

(4a) “만주로 천도를 한다면… 다른 황족을 옹립할 가능성도 있고, 그야말로 단노우라(壇の浦)의 비극이 재연될 판이군요.” “단노우라의 비극.” 두 사내는 서로 마주보며 실소를 한다. 단노우라의 비극이란 헤이안조(平安朝)말기, 권세의 절정에 있던 헤이케(平家)는 그 일문의 총수 다이랴노 기요모리(平清盛)가 죽음으로써 쇠퇴의 길을 밟게 되고 드디어 겐지(源氏)에게 쫓기어 진기(神器)

20) 등장인물 중에 제문식은 조용하의 대학친구이자 사업동반자이다. 일본인 오가다 지로는 코스모폴리탄이즘의 신봉자며 관동대진재 때는 조선인 학생들을 도와준 선량하고 순진한 인물로 등장한다. 『토지』에 등장하는 작중인물의 소개 및 캐릭터에 관해서는 다음 자료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참고가 된다. 이상진(2002)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 인물사전』, 나남출판, pp.1-159.

21) 박경리의 이력을 보면 해방이 되던 해 1945년에 진주여고를 졸업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중등교육을 마친 셈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박경리 연보를 참조하기 바란다. 박경리(1995) 『문학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에게』, 현대문학, pp.314-317.

와 어린 천황 안토쿠(安徳)를 데리고 단노우라에 이르게 되며, 이곳에서 최후의 결전을 하고 헤이케는 진멸하게 되는데 그때 기요모리의 아내이자 안토쿠의 외조모인 니이노아마(二位尼)가 안토쿠를 안고 바다에 빠져 죽은 역사적 사건을 두고 한 말이다. 군벌이 현인신인 천황을 죽이고 유폐하고 머리를 깎아 증으로 살게 하며 왕위를 박탈하고 볼모로 삼고, 그와 같은 비정한 사건들은 일본 역사에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만주 천도나 새로운 황족의 옹립이라는 말은 이들 두 사나이에겐 실감으로 다가온 것이 사실이다.(5부 4권, pp.94-95)

이 대목은 요시에 에이사쿠(吉江榮作)와 그의 처남 오가다 지로의 대화 부분이다.²²⁾ 요시에게 오가다에게 당시 일본 육군에서 천황을 만주로 이주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들려주는 장면이다. 이 장면을 통해서 박경리는 일본의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역사적 사건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단노우라의 비극’에 견주하며 언급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상세한 서술을 보더라도 박경리가 얼마만큼 일본역사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다.

(4b)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시다 선생은 눈을 지그시 감고 노래구절을 암송했다. …(중략)… “오오 텐노사마(天皇様·천황님) 텐노사마.” 하는 것이 아닌가. 반의 삼분의 일쯤 되는 일본아이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감격해 있었지만 조선아이들은 말뚱말뚱. 더러는 웃음을 참느라 애를 쓰는 것이었다. 피골이 상접한 사내가 우는 것도 그랬지만 텐노사마라는 용어 자체가 잘 쓰이지 않는 것이었고 다분히 희극적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가령 예를 들면 센세이사마(先生様) 했다면 그것은 무식한 신분이 낮은 사람이 존경을 표하기 위한, 지나친 것으로 간주하는 게 통례다. 수쇼사마(首相様) 다이진사마(大臣様) 하고 부르지 않기 때문이다. (5부 3권, pp.113-114)

이 부분은 일본인 이시다 선생을 회화화한 장면이다. 이시다는 흥이의 장녀이자 이용의 손녀인 이상의가 다니던 ES여고의 역사 선생이다. 그가 고대가요집 『만엽집(萬葉集)』에 수록된 가요에 곡을 붙인 군가를 암송한 후에, “오오 텐노사마(天皇様·천황님) 텐노사마.” 라고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고 조선인 아

22) 작품 중에서 요시에 에이사쿠는 오가다 지로의 매형이다.

이들이 웃음을 참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시다가 웃음거리가 된 이유는 간단하다. 눈을 지그시 감고 노래를 암송하는 모습도 우스꽝스러웠지만, 무엇보다도 ‘텐노사마(天皇様)’라고 하는 일본어 표현이 일반적인 일본어 어법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박경리는 “텐노사마라는 용어 자체가 잘 쓰이지 않는 것이었고 다분히 희극적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가령 예를 들면 센세이사마(先生様) 했다면 그것은 무식한 신분이 낮은 사람이 존경을 표하기 위한, 지나친 것으로 간주하는 게 통례다. 수쇼사마(首相様) 다이진사마(大臣様) 하고 부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부연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이 대목만을 보더라도, 박경리가 일본의 고대가요집의 가사는 물론 정확한 일본어 표현에 이르기까지, 일본에 관한 지식이 얼마나 정확하고 해박한 지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천황에 대한 지식 및 비판의 질적 수준도 보통 사람들의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가 천황을 ‘신국’의 ‘현인신’으로 간주하는 신화적 허구성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다음 대목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c) “맞소. 신국(神國) 아닌 지구의 어느 지역에 태어난 사람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야하지요. 현인신이 아닌 사람으로서 추앙을 받아야 할 겁니다. 네 그것이 타파되어야... 허황한 논리는 깨어져야 합니다. 부의 산실이며 상징인 기계문명도 막아야겠지요. 그러나 언제? 가장 합리적인 과학이 사람의 이성을 파괴하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 하기는 나타난 이상 끝장 보지 않고 물러나겠어요?” (5부 2권, p.217)

이 인용문은 오가다와 조찬하가 당시 시국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조찬하가 오가다에게 강조한 말이다.²³⁾ 『토지』에는 여러 곳에 신국, 만세일계, 현인신으로 연결되는 천황의 신화적 허구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묘사되었다.

(4d) 그들 일본인들은 일본을 신국(神國)이라 하고 왕을 현인신이라 하며 후지산(富士山)을 지구의 정신이라 했는데 그러면 신은 악(惡)인가, 신은 모든

23) 조찬하는 친일귀족 조병모 남작의 차남이다. 친일귀족이기를 거부하나 독립투사도 되지 못하는 불행한 지식인으로 등장한다.

것을 탐내는 욕망의 덩어린가. 신은 목숨들을 참혹하게 베어 죽이는 잔혹성 그 자체인가? (5부 2권, p.438)

이 대목은 이양현의 머릿속 생각이다.²⁴⁾ 이양현이 방직회사 사장인 황태수의 두 딸 덕희와 옥희가 늘어놓는 시국에 대한 견해를 들으면서 혼자서 생각을 정리하는 대목이다. 여기서도 신국과 현인신, 그리고 후지산(富士山)으로 이어지는 천황숭배 사상이 비판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4e) “우리들은 보다 더 긴장해야 한다. 전선에서는 매일매일 천황폐하를 위하여 대일본제국의 남아들이 죽어가고 있다. 총후(銃後)의 우리들 마음가짐이 안한(安閑)하다면 그것은 불충이다. 우리는 이번 성전에 신명을 다 바쳐서 승리로 이끌어가야 하며 천황폐하의 거룩한 빛이 사해(四海)를 덮고 생명 받은 자 그 모든 것들이 폐하 앞에서 감읍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귀축(鬼畜) 영미(英美)는 머지않아 이 지구에서 사라질 것이다. 기필코 우리는 그놈들을 몰아낼 것이며 오로지 매진할 뿐이다. 그러나 가장 명심해야 할 일은 천황폐하의 심금(宸襟, 임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일로서, 우리 오기미(大君)는 억조창생의 아버지시며 군왕이시며 또한 현인신이시다. 우리는 일사분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바쳐서 국가 만대의 안녕은 물론 팔굉일우(八紘一宇, 온 세상이 천왕을 중심으로 한 한 집안)의 이상을 완수해야 하며 영원토록 와가 기미(나의 君, 내 님) 옥체를 보위해야 한다….(후략) (5부 3권, pp.112-113)

이 부분은 신국, 만세일계, 현인신으로 이어지는 천황숭배의 구체적인 광경이다. 앞서 인용한, 이시다 선생이 눈을 지그시 감고 『만엽집』의 노래 구절을 암송하기 직전 장면이다. 박경리는 이시다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켜 당시 일본인들의 천황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회화화하여 드러내고, 그 신화적 허구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신격화된 천황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일본인의 모습을 회화화하여 보여줌으로써 천황숭배의 허위성을 강하게 부정하였던 셈이다.

박경리의 천황숭배 및 신격화에 대한 비판은 이시다라고 하는 인물을 회화화하여 웃음거리로 만드는 데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작품 속에 허위적인 천황

24) 이양현은 이상현과 기화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숭배 및 그 신격화를 직접적으로 모욕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도입함으로써 더욱 그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기에 이른다.

(4f) 남순자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저기 봉안전(奉安殿)에 말이야. 봉안전 앞에다가 누가 똥을 싸 놨다는 거야.” “뭐라구!” 상의는 펄쩍 뚱뚱 놀란다. “그거 정말이니?” ... (중략)...일본 천황의 소위 어진영(御眞影)을 모셔놓은 곳이다. ES 여학교에는 천황의 칙어(勅語)가 교장실 어딘가에 간수되어 있겠지만 봉안전은 없었다. 규모가 큰 학교에는 대강 있는 모양이었다. 일본 신사 비슷한 조그마한 석조건물로서 3단정도의 기단 위에 있었는데 봉안전 앞이라면 틀림없이 그 기단 위일 것이다. 누구든 그 앞을 지나갈 때는 절을 해야 하며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곳이었다. 그 봉안전 앞에다가 똥을 싸놨다면 그것은 정말 보통일은 아니다. 말하자면 천황 얼굴에다 똥을 싼 격이며 대일본 제국에 대하여 그 이상의 모욕이 어디 있겠는가. (5부 3권, pp.128-129)

이 부분은 이상의와 이상의의 ES여학교의 친구인 남순자의 대화 장면이다. 남순자가 이상의에게 남학생들이 다니는 중학교의 봉안전(奉安殿) 앞에 누군가가 똥을 싸놓았다는 소문을 전해주고 있다.

이 대목은 『토지』 곳곳에 언급된 박경리의 일본 천황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 중에서도, 어느 의미에서는 가히 절정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봉안전이라고 하는 천황숭배에서 가장 성스러운 공간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건드림으로써, 그 신격화된 천황에 대한 반발심리 나아가서는 반일감정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²⁵⁾

5. 마치며

박경리의 『토지』는 한국 근현대문학 분야뿐만이 아니라, 일본문학 및 일본

25) 이 봉안전(奉安殿)이라는 천황의 신격화 공간은 5부 5권에서 다음과 같이 다시 묘사된다. “이들이 교문을 들어서서 연병장같이 넓고 살풍경한, 나무라고는 한 그루 없는, 그리고 동편에 그 문체의 봉안전(奉安殿)이 있는 교정을 질러 건물 뒤편까지 갔을 때 그곳에는 애국부인회의 띠를 두른 부녀들이 몇 사람, 그들은 갓포후쿠(割烹服, 일본식 앞치마)를 입고 바쁘게 오가고 있다.” (5부 5권, p.267)

문화를 연구하는 연구자도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할 작품이다. 왜냐하면 모두 5부 5권으로 구성된 장편문학 속에, 가히 ‘일본문화백과사전’이라고 불리도 좋을 만큼 일본, 일본인, 일본문화에 대한 다양하고 방대한 지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토지』라는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에 어쩌면 당연한 점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만약 이 작품에서 일본 관련 서술을 제외한다면, 작품의 서사구조가 무너지고 등장인물들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는 등, 흔히 ‘민족대서사시’로 평가되는 이 작품의 문학적 가치가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만큼 『토지』라는 작품에서 일본, 일본인, 일본문화에 대한 서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다양한 전공의 일본연구자들이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토지』에 접근하는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연구는 결국 작가 박경리의 일본인식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귀착된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그의 일본인식 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천황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였다.

『토지』라는 작품 곳곳에는 박경리의 비판적인 일본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일본에 대한 비판인식 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천황에 대한 비판이 가장 날카롭고 두드러진다. 박경리의 표현에 의하면, 천황이야말로 일본문화의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그의 일본문화에 대한 비판은 필연적으로 천황에 대한 비판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본고에서 일본의 천황관을 중심으로 박경리의 일본인식을 검토하고자 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박경리의 일본 천황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다음 두 가지 점으로 집약하여 검토하였다.

첫째 그가 ‘천황’이라는 호칭이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통하여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는 점이다. 이 점은 일찍이 한국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전개되었던 천황의 호칭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제기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어떻게 보면 박경리는 문학자로서 『토지』라는 문학작품을 통해서 그 선구적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다. 둘째 그는 작품 곳곳에서 신화적 허구성에서 비롯된 천황숭배 및 신격화의 허무맹랑함을 비판하였다. 그 방식은 때로는 작중 일본인 등장인물의 천황숭배를 희화화하는 방법으

로, 그리고 때로는 서술자가 직접 전면에 등장하여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천황에 대한 비판은 박경리의 일본비판의 결정이자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구난희(2010) 「일제하 천황인식 형성과 역사교과서의 천황서술 : 1930년대 이후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 12, 한국역사교육학회, pp.75-114.
- 김용의(2011) 「박경리의 『토지』에 등장하는 일본의 역사적 인물」 『한국일어일문학회 2011년도 하계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일어일문학회, pp.232-235 .
- _____ (2011) 「박경리의 『토지』와 일본인식-『토지』에 등장하는 일본 문학자-」 『일본어문학』 제51집, 한국일본어문학회, p.307, p.309.
- 김원우(2014) 『일본탐독』, 글항아리, pp.50-51.
- 박경리(1981) 『Q씨에게』 박경리 문학전집16, 지식산업사, pp.1-406.
- _____ (1990) 『만리장성의 나라』, 동광출판사, pp.88-89.
- _____ (1994)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박경리의 원주통신』 나남, pp.1-207.
- _____ (1995) 『문학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에게』 현대문학, pp.314-317.
- _____ (2001) 「생명을 존중하는 문학」 『나의 문학이야기』 문학동네, pp.9-22.
- _____ (2002) 『토지』 (전권), 나남출판
- _____ (2004) 『생명의 아픔』, 이룸, pp.1-330.
- _____ (2007) 『가설을 위한 망상 : 박경리2007 新원주통신』 나남, pp.60-61.
- _____ (2008) 『원주 투데이』 (2008년 08월 11일-09월 16일)
- _____ (2013) 『일본산고-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에게 미래는 없다』 마로니에북스, pp.1-208.
- 박상민(2004)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일본론」 『현대문학의 연구』 한국문학연구학회, pp.77-117.
- _____ (2008) 「작품 구조와 인물을 통해 본 일본론」 『한국근대문화와 박경리의 『토지』』 소명출판, pp.253-287.
- 박상현(2014) 「이광수 「명치천황어제근역」의 번역대본 연구」 『일본문화학보』 61 한국일본문화학회, pp.83-97.
- 이상진(2002)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 인물사전』, 나남출판, pp.1-159.
- _____ (2010) 「탈 식민주의적 시각에서 본 <토지> 속의 일본, 일본인, 일본론」 『현대소설 연구』 43 한국현대소설학회, p.414, pp.428-429.
- 이승윤(2004) 「문학 교육적 활용 방안」 『토지의 문화지형학』 (최유찬 외) 소명출판, pp.301-356.
- 이승하(2004) 「소설에서 서사음악극까지」 『토지의 문화지형학』 (최유찬 외) 소명출판, pp.211-244.
- 최유찬(2004) 「『토지』의 성립과 판본의 변이 양상」 『토지의 문화지형학』 (최유찬 외) 소명출판, pp.15-88.
- _____ (2006) 「『토지』와 일본」 『해방 60년 한국어문과 일본』 보고서, pp.11-46.
- 申銀珠(2006) 「朴景利『土地』に描かれた日本・日本人論」 『新潟国際情報大学 情報文化学部紀

要』 第9号 新潟国際情報大学, pp.19-27.

鄭顛琦(2001) 「日本論として書かれた小説」 『週刊朝日百科 世界の文学112』 09月 朝日新聞社

小森陽一(2003) 『天皇の玉音放送』 五月書房, pp.15-76.

http://srchdb1.chosun.com/pdf/i_archive/(검색일 : 2015년 11월 20일)

<http://www.wonjutoday.co.kr/>(검색일 : 2015년 11월 20일)

논문 투고 일자 : 2016.03.30.

논문 심사 일자 : 2016.04.18.

게재 확정 일자 : 2016.04.28.

 <要旨>

朴景利の『土地』に表れた日本の天皇認識

金容儀

本稿は朴景利の『土地』を中心として、朴景利が日本の天皇についてどのように批判的に認識していたかを検討したものである。本稿において朴景利の天皇に対する認識を確認しようとする主な理由は次のようである。まず『土地』には、「日本論として書かれた小説」であると評されるほど、日本、日本人、日本社会についての膨大な「情報」がこめられているからである。まるで「日本文化百科事典」のようなものであると言っても、けっして過言ではないであろう。また韓国の近代文学史における『土地』の位置づけを考慮したからである。『土地』は小説だけではなく、数回にわたって映画やドラマとして製作され、多くの韓国人に親しまれてきた。いわば「国民文学」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作品である。したがって『土地』に述べられた朴景利の天皇に対する認識は、韓国人の日本観の形成に少なからぬ影響をおよぼしたと言えるであろう。

Park Kyeongri's Critical Recognition of the Japanese Emperor

Kim, Yong-Ui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firm and review Park Kyeongri's critical recognition of the Japanese emperor by focusing on her 『Toji』. The work of confirming Park Kyeongri's recognition of the Japanese emperor through her 『Toji』 has important meaning mainly in two points.

First, vast knowledge on Japan, Japanese and Japanese culture, which is evaluated as 'a novel written as a critique on Japan' among some critics, was contained in the 『Toji』. If it is exaggerated a little, it could be a kind of 'Japanese cultural encyclopedia'. So in the study on the 『Toji』, understanding of the author's recognition of Japan, Japanese and Japanese culture has very important meaning.

Second, the paper takes the position that Park Kyeongri's 『Toji』 has modern literary history in Korea. The 『Toji』 has been published, revising its editions since it had begun as a series first in 1969. It has also been widely known to the public not only as a novel, but also through movies and dramas. So Park Kyeongri's recognition of Japan, which was described in the 『Toji』, could be thought to have some influence in forming public opinion related to Japan in Korean society.

Considering when Korean society began to recognize the Japanese emperor concretely in history, through what process the discussion of the emperor was produced and circulated in the time, and in what way the discussion is functioning now, takes an important part in the study of Korean's view on Japan.

This study presented critical consciousness of Park Kyeongri on Japanese emperor, which was revealed in the 『Toji』, concretely dividing it as iniquity of a title, emperor, and critique on worship of the emperor and its deification.